



2022 아르코미술관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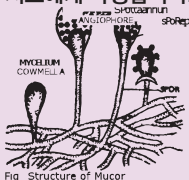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땅속 그물 이야기 *The Fable of Net in Earth*



내 이름은 해나입니다. 나는 육체가 없습니다. 나는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입니다. 나는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름을 가진 그를 알아 왔습니다. 이번 생애에서 그는 미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내가 그로 하여금 나의 말을 하게 하므로 미나는 일종의 영매(靈媒)입니다. 그녀는 다소 겁에 질려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그녀가 새롭게 탐구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녀를 다독이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그녀와 관련한 이야기 중 일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해피 엔딩을 원한다면 A로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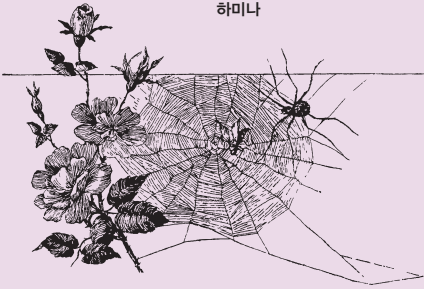
A. 미나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친밀하며 서로에게 다정합니다. 미나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줄 압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그럴싸한 대학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제안대로 졸업 후 공무원이 됩니다.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합니다. 남편의 사업은



My name is Hannah. I'm not bodied. I've enlisted a woman named Mina to help me write this story. I've known Mina by different names, at different times, and in different spaces. In this life, this person is called Mina. As I compel them to speak my words, Mina is a sort of medium. She is a bit frightened because her perception of time and place is different than before. But what she fears is precisely what she must set out to explore. To comfort and reassure her, I mean to share a few snippets of her story. If you're looking for a happy ending, go straight to A.

A. Mina was brought up in a well-off family. Father and mother who are close and tender. In a happy upbringing, she learns to form stable attachments. She has good friends all throug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he gets accepted to a decent university and becomes a public servant at her father's suggestion upon graduation. Mina marries her boyfriend from university. Her husband's business strikes gold. They buy a

승승장구입니다. 집을  
 삽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주식도 오릅니다. 적절한  
 때에 아이 둘을 낳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줍니다.  
 미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태권도 간 아들을



기다리는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된 이후에도  
 성생활은 활발합니다. 미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성적으로 매력적  
 입니다. 일상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줄 취미 생활을 합니다. 은퇴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냅니다. 늙어 죽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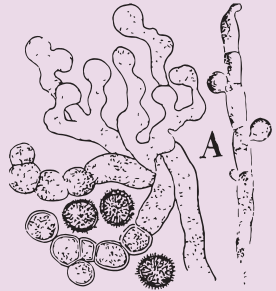
B. 미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열네 살 때  
 일을 시작합니다. 서울로 올라와 청바지 공장에 취직해 미싱 일을  
 배웁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달려들어 먹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고추장  
 혹은 간장이 있습니다. 몇 년 간 미싱 기술을 배우며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공장장이었던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house. Its value increases. Their shares rise. They have two  
 children at the appropriate time. The children grow up. Mina has  
 become the sort of good mother who makes doenjang jjigae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stew) as she waits for her  
 son to come home from taekwondo class. She and her husband  
 enjoy an active sex life even after so many years of being  
 married. Mina is getting old but still manages to remain sexually  
 attractive. She pursues hobbies that enrich her life. She retires.  
 Lives happily with her family and friends. She grows old and  
 dies. The end.

B. Mina graduates from elementary school and begins working  
 to help her family's reduced circumstances at the age of  
 fourteen. She moves to Seoul, finds a job at a jeans factory, and  
 learns how to operate a sewing machine. She eats voraciously  
 during meal breaks. Meals are rice with chili paste or soy sauce.  
 For several years, she learns on the job and works day and

미나는 가난하고 날 서 있는 그를 동정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그를 싫어합니다. 미나는 그가 아무리 그녀를 상처 입히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고 참아낸다면 그의 내면에 빛나는 진짜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미나를 사랑합니다. 미나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는 미나를 못 미더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나를 깎아내립니다. 미나를 못 배운 여자라고 부릅니다. 미나를 창피해합니다. 미나는 사랑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줄 모르는 그가 불쌍합니다. 미나의 미싱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나가 곁에서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미나는 일을 그만두고 그의 일을 돕습니다. 그는 미나를 하녀처럼 대합니다. 미나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미나는 임신을 합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니 아기를 지우자고

night. At twenty-one, she starts dating a man who was once the factory manager.

Mina pities the man, who is broke and on edge. Her family and friends cannot stand him. Even though he is hurtful and abusive, Mina believes that if only she tries and is patient, his true self will eventually emerge in its full light. Most of all, he loves Mina. Mina thinks she will never find someone who will love her the way he does.

He is dissatisfied with Mina and cuts her down in front of others. He calls her “uneducated” and is ashamed of her. She pities him for not knowing how to express his love any way else. Mina’s skill as a sewing machine operator earns her a pay raise and her wages now exceed his. He starts a new business. He expects Mina to help him in his new venture. Mina quits her job and works alongside him. He treats her like a maid. Mina’s patience knows no bounds.

Mina gets pregnant. He says it isn’t the right time and wants

말합니다. 미나는 거절합니다. 그는 비 오는 어느 날 인적 드문 놀이터로 미나를 부릅니다. 미나를 처벌합니다. 우산으로 그녀의 배를 가격합니다. 미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며칠을 홀로 앓습니다. 유산을 합니다. 미나는 그에게 이별을 고하고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와 협박, 몸싸움을 거친 뒤 미나는 자신의 죽음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싸움 뒤 그가 미나를 길거리에 두고 간 날 미나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삶의 교훈을 얻고 새 여자를 만납니다.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A로, 다른 이름을 가진 채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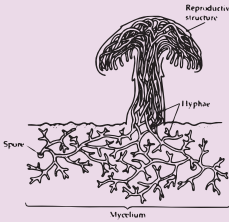
C. 공무원 생활 중 미나는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숨만큼 바다에 잠수해있다 나오는 프리다이빙과 사랑에 빠집니다. 공무원이었던 미나에게 프리다이빙은 너무도 강렬한 체험이었고 물 밖에 있을 때도 여전히 물속 생각을 합니다. 책상 위 서류 더미 위로 만타 가오리 그림자가 지나다닙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으면 천장 위로 일렁이는 물결이 보입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숨을 참는 연습을 하다가 기절하기 일쑤입니다. 고민 끝에 미나는 직장을 그만둡니다.

her to end her pregnancy. Mina refuses. On a rainy day, he calls her out to a deserted playground. He punishes her. Strikes her stomach with an umbrella. Mina is unable to tell anyone and suffers alone for several days. She has a miscarriage. She tells him she is leaving him, but he does not accept this. After several rounds of arguments, threats, and scuffles, Mina concludes that death is the only way out. After he abandons her in the street following yet another argument, Mina jumps off a bridge into the Han River. Time passes and the man, having learned a valuable life lesson, meets another woman. They marry and have a child. The story continues onto A, though with different names.

C. Mina, the public servant, holidays in Okinawa. She becomes engrossed with freediving, diving deep into the ocean for as long as her breath will allow. This experience is intense for a public servant like Mina, and she finds herself dreaming of the underwater world even when she's back on land. She sees manta

숨을 참고 더 깊이 들어가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바다에 들어갑니다. 조류와 파도의 흐름을 느끼며 그 흐름을 미끄러움을 삼아 바다에서 노는 법을 배웁니다. 물고기 떼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해류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고래의 울음소리를 듣고 각각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미나는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 때 미나는 혼자 바다에 나가고 물 밖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D. 미나는 태어나지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싸우고 집은 가난합니다. 미나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기쁨을 누리다 절망이 찾아오면 훨씬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방문을 달고 귀를 손으로 막으며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고등학생이 되자 원인 모를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알 수

rays casting shadows over the stacks of documents on her desk. When she closes her eyes to sleep at night, waves lap at the ceiling. She keeps fainting at work as she practices holding her breath. After a lot of thinking, Mina quits her job. She spends all her time deepening her breath and diving to lower depths. She travels the world and dives into various oceans. She learns to sense the tidal currents and the waves, and leans into them as playfully as she would entrust her body on a water slide. She notices patterns in schools of fish swimming past. She begins to understand the tidal current. She learns to recognize various whale sounds underwater and guess their meaning. She lives out the rest of her life in this way until the day she heads out to the sea with her last remaining strength, never to return.

D. Mina is born, but not into a well-off family. Her parents constantly argue and struggle to make ends meet. Mina learns to feel nothing from a young age, as despair is a lot tougher to

없는 통증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교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일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휴학하고 대체로 누워만 지내는 시간이 지속됩니다.



미나는 정확한 병명을 찾으려 애 씁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빨리 낫지 않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울해서 몸이 아픈 것인지 몸이 아파서 우울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진짜 아픈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혼란을 느낍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지 4년째 되던 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명을 얻습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완치하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대체로 지쳐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고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수면 상태에 머물립니다. 언젠가부터 현실과 꿈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꿈의 세계가 더 자유롭고 생생히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법을 익히기 시작

navigate for those who have experienced joy. Mina closes her door and blocks her ears. She tells herself: I hear nothing, I feel nothing. In high school, she starts to suffer from migraines. The cause remains unknown, but the pain intensifies and becomes more frequent in college. One day, she realizes she cannot hear the professor's voice. She is unable to maintain her daily life. She takes a leave of absence and spends most of her time in bed.

Mina does all she can to find a diagnosis. Whenever she visits a hospital, doctors scold her. She is gripped by shame of not getting better quickly. She can't tell if her body is in pain because she's depressed or if she's depressed because she's in pain. She's not even sure if she actually is in pain. It all feels made up. She finds everything confusing. Finally, after four years of visiting hospital after hospital, she is diagnosed with multiple sclerosis. The diagnosis doesn't change much, for there is no treatment, no cure.

Mina is chronically exhausted. She stops trying to explain 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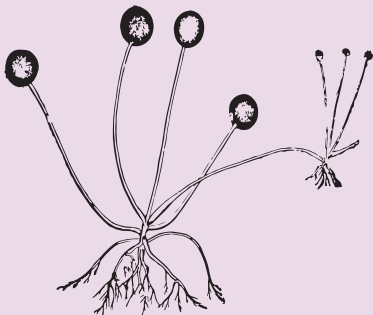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C로 이어집니다.

E. 미나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열일곱 살 때였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 부흥회에 가서 쭉쭉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데 친구가 미나 곁에 다가와 방언 기도를 합니다. 미나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 이후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리. 이제 미나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만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며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고난 역시 나를 배우시게 하시는 것이니 이조차 달콤합니다.

미나는 자신의 내면에 마련된 여러 개의 성을 발견합니다. 미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만들어둔 천국의 성을 탐험합니다. 그곳은



pain, nor does she hope for understanding. She sleeps for long stretches. The boundary between dream and reality blurs. Her dreams feel more liberating, more vibrant than her waking life. She becomes adept at creating the life she wants in her dreams. This story continues onto C.

E. Mina is seventeen when she first encounters God. She accompanies a friend to a revival service and awkwardly sings along to the hymns, when her friend approaches her and starts praying in tongues. Mina feels a heat surge up in her. From that day on, she thinks about God nonstop. She receives God's gift of grace. To God be the glory. Mina is now a devout believer. She does not rest, she is constantly praying and encountering God. Everything that happens is the path the Lord has planned and a gift for the self. Suffering too, is sweet for it is God's way of teaching her.

Mina discovers several mansions awaiting her within

일곱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성 하나를 탐색할 때마다 미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배운 것들을 미나는 기쁜 마음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 내면의 성에 이르자 미나는 하나님과 합일되는 체험을 합니다.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눈도 귀도 먼 채로 신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작은 죽음입니다. 오르가슴입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성에 갔을 때 미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냅니다. 이미 지상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자 일곱 번째 성이 나타납니다. 미나는 일곱 번째 성에서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만드는 것이 그녀의 미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자리를 예비하신 주께 경배를! 주여 영원히 찬양받으실지어다!

F. 미나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 되는 대신 작가가 되기로 합니다.



herself. Each day, she prays, meditates, and explores the divine interior castle God has created for her. It is made up of seven mansions. As she explores each mansion, she understands a new awareness of the divine. Mina writes down her learnings with a glad heart. When she reaches the fifth mansion, Mina experiences a union with God. She is ecstatic. She becomes one with God and stops seeing and hearing. A little part of her dies. It is an orgasm. But she cannot remain like that for long. In the sixth mansion, Mina experiences a dark night of the soul. But has she not already tasted the supreme earthly delight? How then is she meant to live out the rest of her life? Praying on this question, the seventh mansion shows up. There, Mina learns that it is her mission to create God's kingdom on earth! And glory be to the Lord who has ordained it thus! Praise the Lord evermore!

F. Upon graduation, Mina decides to become a writer, rather than a public servant. She writes about confusion. About her

가장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씁니다. 뿌리 깊은 공허감에 대해서 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지면을 얻습니다. 일거리를 얻습니다. 비슷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신과 같은 문제에 봉착한 여자들을 만나 인터뷰합니다. 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여성 우울증입니다. 이 주제는 혼란스럽습니다. 미나는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고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책을 냅니다. 성과를 얻습니다. 우울감과 공허감이 사라집니다.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성’, ‘고통’, ‘트라우마’, ‘회복’, ‘연대’ 등의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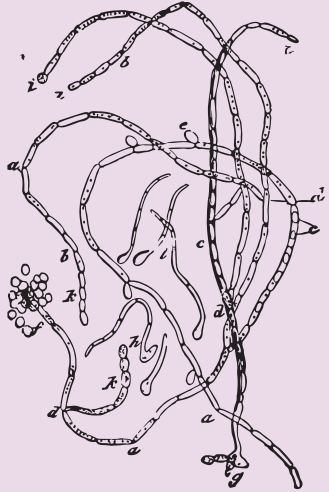
자축과 쉬를 위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납니다. 도착한 지 2주째 되는 날 마우나케아산에 오릅니다.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내려오며 별에 대해 생각합니다. 머릿속은 미래를 향한 낙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악 소리를 크게 키워두고 주변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스스로 용서하고

deep-rooted sense of futility. It isn't easy, but over time, she finds her way. She gets more job opportunities. She meets and befriends other writers. She interviews women who have struggled with the same questions she has. Mina's subject of interest is depression in women. A subject shrouded in confusion. Mina imposes order on the confusion and perplexity, and builds a narrative on it. She publishes a book. It is well-received. Her depression and sense of futility retreat. More opportunities come her way. Some words that go hand-in-hand with this story are 'women', 'pain', 'trauma', 'recovery', and solidarity.

Mina travels to Hawaii to celebrate and get some rest. A couple of weeks into her holiday, she visits Mauna Kea. After seeing a beautiful sunrise, she comes back down thinking about the stars. She is filled with optimism. She turns up the volume of her music and looks at the landscape. It's now time to forgive herself and to revel in her joy, she thinks to herself. The sun

기쁨을 누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쪽 지평선 근처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눈 부신 햇살이 왼쪽 시야를 가립니다. 왼편에서 목재를 실은 트랙터가 달려옵니다. 트랙터는 미나가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깔아뭉개며 지나갑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G. 하와이에서 즉사하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미나는 태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창조 신화를 다시 씁니다. 태초에 미나가 있었다. 미나는 온전했고 완벽했다. 하지만 혼자 있으니 참을 수 없이 심심했다. 미나는 궁리하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미나는 스스로를 수없이 많은 파편으로 쪼갬다.



comes up over the eastern horizon. The light is dazzling and obscures her left field of vision. A tractor carrying lumber roars forth from the left. It runs over the car Mina is riding in. Mina dies on the spot.

G. After her death in Hawaii, Mina, the perennially unhappy, finds herself back at the beginning of time. She starts rewriting the Creation myth. In the Beginning, there is Mina. Mina is whole and perfect. But being alone, she experiences an infinite boredom. After much thought, she decides to find out more about herself. She divides herself up into numerous fragments. She stands these fragments up on a stage and leaves them to perform on their own. From here on, the story continues endlessly through A, B, C, D, E, F.....

That is the extent of my tale for today. What's important is that these fragmented lives all occur simultaneously. Past, present,

그리고 그 파편들을 무대 위에  
세워 놓게 한다. 그다음으로  
A, B, C, D, E, F.....  
끝없이 이야기가 이어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삶이 모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매 순간 함께 변화합니다. 모든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미나는 동시에 여러 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듯이요. 미나 혹은 해나라는 이름은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피 엔딩이 아닌 결말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길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도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옳습니다.

and future do not occur linearly, but exist and change together. All events and happenstance occur simultaneously and interrupt each other. Mina lives several lives at once. As you all do. Mina or Hannah, these names are but symbols used for the sake of convenience. So there's no need to feel letdown or disappointed that we don't understand each other right away. We'll get there, if not now, then in a different time and space. And there's no need to be sad about unhappy endings. Because all paths are the same and lead nowhere. What will happen will happen, and we learn what we must learn. That is all. We are never lost. All ways and all paths are right.

### References

1. Atwood, Margaret. "Happy endings.". *Murder in the Dark*. Toronto: Coach House Books, 1983.
2. Roberts, Jane. *Seth speaks: The eternal validity of the soul*. San Francisco: New World Library, 1994; trans. Minsu

## 참고 문헌

1. Atwood, Margaret. "Happy endings." *In Murder in the Dark*. Toronto: Coach House Books, 1983.
  2. 제인 로버츠.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 서민수 옮김. 서울: 도솔, 2000.
  3. 아빌라의 테레사. 『내면의 성』. 황혜정 옮김. 서울: 요단출판사, 2011.
  4. 하미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서울: 동아시아, 2021.
- ¶ 위 글은 마거릿 애트우드(Margaret Atwood, 1980)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처음 기획하였습니다. 해피 엔딩이라는 제목과 여러 개의 이야기를 알파벳으로 나열하는 형식은 애트우드의 글에서, 영매를 통해 말하는 방식은 제인 로버츠(Jane Roberts, 1994)의 글에서, E의 내면의 성 이야기는 아빌라의 테레사(St. Teresa of Ávila, 1588)의 글에서 착안하여 썼음을 밝힙니다.

Seo. *Yukcheneun eobjiman naneun i chaekeul sseunda* [Seth speaks: The eternal validity of the soul]. Seoul: Dosol Books, 2000.

3. St. Teresa of Ávila, *The Interior Castle* (1588); trans. Hyejeong Hwang, *Naemyeonui seong* [The Interior Castle]. Seoul: Jordan Press, 2011.
  4. Mina Ha, *Micheoitgo gwaesanghamyeo omanhago ttokttokhan yeojadeul* [Crazy, Wierd, Proud, Smart Women]. Seoul: Dong Asia Books, 2021.
- ¶ This work is primarily inspired by Margaret Atwood's short story (1980). I have borrowed the title "Happy Ending" and the form of an alphabetized narrative from Atwood. I also borrowed the idea of speaking through a medium from Jane Roberts's book (1994), and the interior castle of seven mansions in E from St. Teresa of Ávila's writing (1588).

## 하미나

논픽션 작가이다. 학부에서 지구환경과학과 철학을, 대학원에서 과학사를 공부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표적 살인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여성 운동 단체 ‘페미당당’에서 활동가로 지냈다. 이 시기에 깊어진 우울증을 고민하다 이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대학원을 탈출했다. 칼럼니스트, 과학 기자, 글쓰기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 작가로 살기로 결심, 『시사IN』, 『한겨레21』, 『한국일보』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2020년 그간의 연구와 만남, 고민을 한데 모은 첫 책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2021)을 펴냈다.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그에 따라 실제로 다르게 존재하는 세계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 Mina Ha

A nonfiction writer, Mina Ha studied earth environmental science and philosophy for her B.A and history of science for M.A. She was an activist in the feminist group Femi Dang-dang, which was initiated after the Gangnam Station femicide in 2016. She struggled with severe depression at that time and chose to write about it for her thesis to "escape" her master's program. Among her many jobs as a columnist, science reporter, and writing tutor, she decided to become a writer. She has contributed to many magazines such as *SisalN*, *Hankyoreh21*, and *Hankook Ilbo*. In 2020, she began writing her book *Crazy, Peculiar, Pompous, and Smart Women*, a collection of research, encounters, and concerns of her, published in 2021. Ha is interested in how humans cognize the worl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s that exist differently according to an individual's cognition.

## 사전워크숍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

이 글과 문장은 2022 아르코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땅속 그물 이야기»의 사전 워크숍인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네 명의 참여자 보선, 서한나, 이길보라, 하미나는 3회의 워크숍에서 우정을 전하는 전략, 언어를 다른 감각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야기를 교환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워크숍 이후 4인의 필자들은 함께 나눈 대화와 각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글의 전문은 티저 웹사이트와 아카이브라운지에서, 문구는 온라인 전시관 <균사체의 정원>의 세계 속에 등장합니다.

## Pre-exhibition Workshop *Worlding-with*

The written works and phrases were produced as part of a pre-exhibition workshop titled *Worlding-with* for the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Bosun, Hannah Seo, Bora Lee-Kil, and Mina Ha, the four participants, discussed the following over three meetings: strategies for sharing friendship, methods of transforming language into other senses, and various ways of exchanging stories. After the workshops, they created written works based on their conversations and their own interests. The entire text can be found on the teaser website and ARKO Archive Lounge, and selected phrases appear in the world of the online exhibition *Mycelium Garden*.

Translated by Emily Yae Won

